

USA (58)

목록열기 >

Copernicus - L'Eternite Immediate (2013) | USA

2013/10/05 00:45

http://blog.naver.com/chedragon/50180629108 [복사](#)

[전용뷰어 보기](#)

뉴욕 출신의 시인이자 아방가르드 재즈 뮤지션인 Copernicus의 신보인 L'Eternite Immediate를 소개합니다. 앨범 타이틀에서 느낄 수 있듯이 본 앨범은 불어 앨범으로 이 앨범의 원전은 2001년의 Immediate Eternity 라고 합니다. Immediate Eternity 앨범은 처음 영어와 스페인어로 발표되고 이후 2003년 동일 앨범을 재녹음을 한 이후 영어, 스페인어, 독일 그리고 불어 가사로 보컬을 입혔다고 하는데 이를 Immediate Eternity II라고 하며 본 앨범은 그 중 하나인 불어 버전인 셈이지요. 2013년 문준 레이블을 통해서 재발매 되면서 그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재확인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Copernicus (Joseph Smalkowski)

코페르니쿠스는 전문 시인이기도 하기에 그의 자연발생적 가사는 많은 난해함과 독특함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원자와 양자에 관한 그의 견해는 사실 대중적인 것과는 거리감이 있지요. 한때 스튜디오에서 레코드 세션은 그를 매우 실망하게 했으며 그는 음악이 아닌 책으로 그의 철학을 표현하기로 하고 그 결과물은 2001년 "Immediate Eternity"라는 서적으로 출판됩니다.

서적 출판을 앞두고 그는 아직 출판되지 않은 원고를 손에 들고 에쿠아도르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에쿠아도르인 뮤지션들을 만나게 되며 그 지역의 저렴한 레코딩 비용과 함께 자연발생적인 녹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이 작업에 만족했으며 Guayaquil에서 그리고 뉴욕에 돌아와서 믹싱을 마치게 됩니다. 당시 함께 본 앨범을 녹음했던 에쿠아도르 출신의 뮤지션들은 자국어인 스페인어로도 보컬이 입혀지길 원했기에 스페인어도 유창하게 구사하던 코페르니쿠스는 그렇게 했고 에쿠아도르에서만 25회의 공연을 스페인어로 가지며 이후 Immediate Eternity 콘서트는 스페인어 버전으로만 공연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영어 버전(Immediate Eternity II)을 제외하고 스페인어 (La Eternidad Inmediata II), 독일 (Die Sofortige Ewigkeit II) 그리고 불어 (L'Eternite Immediate II) 버전은 모두 외국어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완성한 버전이라고 합니다.

현지 뮤지션들의 백업 연주와 함께 코페르니쿠스의 가사는 이미 완성된 산문을 가지고 보컬로 옮긴 것 이기에 과거의 앨범들에 비해서는 완전히 자연발생적이거나 보다 다소 콘츰이 가능했고 덜 불편한 사운드를 들려주게 됩니다. 본 앨범에서 그는 과거 앨범에서 드러나는 그의 영혼으로부터의 절구보다는 더욱 세상과 직접 소통하는 방법으로서의 대화를 선보이며 그의 불어 보컬은 완전히 모국어처럼 자연스러워서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보컬만을 떼어놓고 보자면 프렌치 프록 밴드인 앙위를 연상하게 됩니다.



태그 최근 | 인기

검색

서재안에 포스트 0

서재 안에 포스트가 없습니다.

전체보기 >

다녀간 블로거

이웃 블로거

TODAY TOTAL

활동정보

RSS 2.0 | RSS 1.0 | ATOM 0.3

POWERED BY NAVER BLOG



Copernicus - L'Eternite Immediate (2013)

트랙 리스트

1. L'Humanite Est Belle(4:33)
2. Reves En Ballons(6:41)
3. La Verite Absolute Est Possible(5:54)
4. Libre De Moi(6:17)
5. Poudre(3:54)
6. Sent L'Inexistence(7:57)
7. La Carotte(8:16)
8. Le Baton(10:55)
9. Il N'Y A Pas Difference(5:27)
10. Vive Le Nouveau!(9:02)

라인업

Copernicus: 보컬, 공, 신티사이저 (6번 트랙)
 Cesar Aragundi: 기타
 Freddy Auz: 베니스
 Newton Velasquez: 피아노, 신티사이저
 Juan Carlos Zuniga Lopez: 드럼
 Matty Fillou: 테너 색소폰 (6번 트랙)



Copernicus - L'Eternite Immediate (2013)

1번 트랙인 L'Humanite Est Belle(아름다운 휴머니티)와 2번 트랙인 Reves En Ballons(풍선 꿈) 등으로 이어지는 본 앨범은 코페르니쿠스의 앨범도 상대적으로 덜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난해한 구석이 있는 앨범이기도 합니다. 그는 3번 트랙인 La Verite Absolute Est Possible에서 절대적인 진리는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4번 트랙 Libre De Moi에서는 나로부터의 해방을 절규하고 있습니다. 5번 트랙인 Poudre는 그저 분말 가루가 아닌 먼지를 의미하며 마치 모든 것이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는 명제가 6번 트랙인 Sent L'Inexistence에서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미학으로 연결됩니다. 7번 트랙 La Carotte는 자연발생적인 삶의 아름다움을 당근에 비유하며 8번 트랙 Le Baton은 얼마나 잔인하게 인류가 행성을 파괴하는가를 그 막대기를 통해서 폭로하고 9번 트랙인 Il N'Y A Pas Difference는 대상은 모르지만 차이점의 부정과 그리고 마지막 트랙인 Vive Le Nouveau!에서는 무존재의 구르는 차살로서 인간성의 파멸을 예상하고 인간 먼지로부터 진화를 거쳐서 출현하는 새로운 창조물을 환영한다고 합니다. “새로움이어 영원하여라! 이 세계는 단지 인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모든 순간이 목시록이자 창세기이다.” 라는 메시지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Copernicus - L'Eternite Immediate (2013)

그는 다수의 앨범들을 발매해오고 있지만 “명성이란 마치 음악 작업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들을 야기하는 마약과도 같은 것”이라는 표현했는데 그러한 말을 하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아직 따라오지 않은 명성에 대해서 오히려 행복해 하는 것 같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엄청난 재력가라는 소문들 들은 적이 있기는 합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그를 다다이즘과 재즈의 결합으로 보기도 하며 William Burroughs와 연결하기도 하지만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의 영문학 석사과정을 밟았던 그는 정작 다다이즘이 무엇인지 모르며 비트 장르의 아버지로 불리는 William Burroughs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코페르니쿠스는 많은 학위와 지적인 수련을 거친 사람이지만 그 자신만의 두뇌로 이 거대한 우주를 마치 지동설이라는 새로운 발견의 코페르니쿠스처럼 홀로 맞닥뜨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창작 활동의 기반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시라고 하지 않고 시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는 시를 매우 훈련된 예술의 한 형태로 바라보기에 자신의 자연발생적인 가사는 시적인 도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쉽지 않은 그의 정신세계라고 할까요? 그는 위대한 시를 쓰는데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솔직히 그의 시에 대한 경외심은 대단하며 자신의 시를 시적인 표현이라고 겸손하게 표현할 줄 아는 아티스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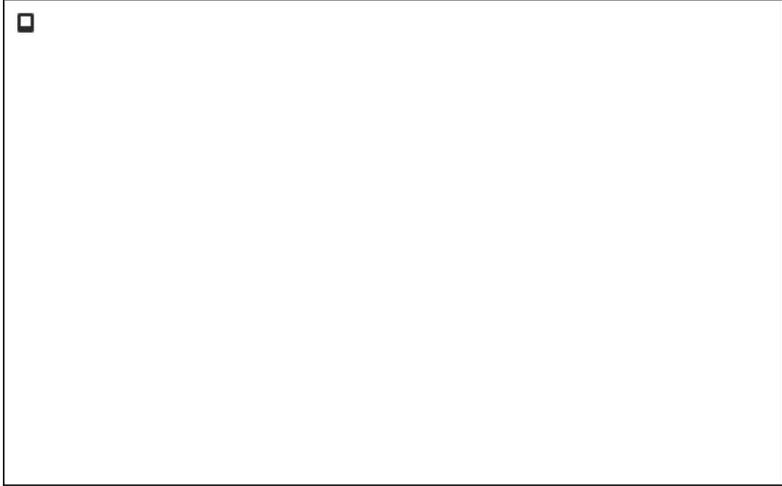


Copernicus - L'Eternite Immediate (2013)

결론으로 결코 이 아티스트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듣지 말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청자들이 기대하는 음악적 환상을 송두리째 빼앗아 뒤흔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결코 이 아티스트와는 영원히 조우하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인류애를 부르짖으면서 나는 단지 원자이다. 나는 먼지다. 하지만 나는 먼지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먼지로부터 왔기에 먼지로 돌아간다는 것은 거짓이다. 우리 모두는 움직이는 원자 먼지이다. 그 원자 먼지를 사랑하라.” 이러한 가사들이 넘쳐나는 그의 음악은 마치 자애로운 미친 과학자가 창작해낸 음악 세계인 것 같아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지만 ...

RELATED RELEASES





해당 동영상이 없어서 2011년 앨범인 Cipher & Decipher에 수록된 Comprehensible

* p.s) 문준 레이블의 주선으로 코페르니쿠스와 이메일 인터뷰를 준비 중입니다. 혹시 그의 음악 또는 아티스트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이메일 또는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종합해서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할 예정이니깐요.

▶ 댓글 5 | 공감하기

| 인쇄

'US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